

대학생들의 주관적 안녕감과 개인중심주의-집단중심주의 성향과의 관계

차 경 호*

본 연구의 목적은 대학생들의 주관적 안녕감과 개인중심주의-집단중심주의 성향과의 관계를 밝히는 것이었다. 전반적인 삶의 만족도, 여덟 가지 삶의 영역에서의 만족도, 정적 정서경험과 부정적 정서경험의 빈도를 자기보고법에 의해서 측정하였다. 전반적인 삶에 대한 우리 나라 대학생들의 주관적 만족도는 약간 불만족하는 수준이며 부정적 정서보다는 정적인 정서를 약간 자주 경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주관적 안녕감의 수준은 다른 나라의 대학생과 비교해서 상당히 낮은 수준이다. 주관적 만족도와 비교적 높은 정적 상관을 보이는 영역별 만족도는 가족, 자기자신, 그리고 재정상태로 나타났고 정서적 안녕감과 자기자신, 자유, 그리고 가족 영역에서의 만족도가 비교적 높은 정적 상관을 보였다. 개인중심주의-집단중심주의는 주관적 개인주의-집단주의 척도(SIDCOL; Triandis, 1995)로 측정하였다. 이 측정치에 대한 요인 분석은 개인중심주의는 독특성, 경쟁을 통한 성취, 경쟁에 대한 태도, 그리고 자기의존성 요인을 포함하고 있고, 집단중심주의는 내집단에 대한 의무, 사교성을 포함한 상호의존성, 그리고 개인 목표의 희생 요인을 포함하고 있음을 보여주었다. 이들 요인 중 독특성, 상호의존성, 그리고 희생 요인이 주관적 안녕감과 일관된 정적 상관을 보였으며 성취 요인은 주관적 안녕감과 부정 상관을 보였다. 주관적 안녕감의 증진에 관한 본 연구결과와 함의를 논의하였다.

I. 서 론

1990년대 들어서 국내에서도 '삶의 질' *quality of life*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이는 국가의 경제적인 성장이나 부의 증가가 실제로 국가의 구성원 개개인이 느끼는 삶의 질을 증진시켰는가를 반성하게 되었기 때문이다. 삶의 질은 객관적 삶의 질과 주관적 삶의 질로 나누어볼 수 있다(이훈구, 1997; 조명한·차경호, 1998). 객관적 삶의 질이란 경제적, 환경적 또는 사회적인 삶의 상황이 어떠한가를 의미하는 것으로 이는 경제학자나 사회학자들이 오래 전부터 관심을 가져왔던 주제이다. 이에 반하여 주관적 삶의 질은 주관적 안녕감 *subjective well-being* 또는 행복 *happiness*이라고도 하는데, 이는 한 사회의 구성원 개개인

* 호서대학교 경영·산업심리학부 조교수

이 주어진 삶의 상황에 대하여 어떻게 생각하고 있고 어떠한 경험을 하는가를 의미한다. 즉 주관적 안녕감이란, 객관적인 삶의 상황에 대한 주관적인 평가인 주관적 만족도의 수준이나 긍정적 또는 부정적인 정서 경험의 정도를 일컫는다(Diener, 1984, 1994). 그러므로 주관적 안녕감이 높다는 것은 전반적인 삶에 대한 만족도가 높고, 부정 정서를 적게 경험하며, 정적 정서를 많이 또는 자주 경험하는 상태라고 정의할 수 있다.

주관적 안녕감에 대한 연구에서 가장 빈번히 논의되는 현상은 개개인이 느끼는 주관적 안녕감의 수준에 차이가 있다는 것이다. 주관적 안녕감에서의 개인들 간의 차이는 무엇 때문인가? 사회과학자들은 주관적 안녕감에서의 차이를 설명하려고 오래 전부터 노력해왔다. 초기의 연구들은 연령, 성별, 결혼여부, 소득, 정치참여도 또는 교육수준 등과 같은 인구사회학적인 변인들이 주관적 안녕감에서의 개인차를 설명해 주리라고 가정했었다(Andrews & Withey, 1976; Bradburn, 1969; Campbell, et al., 1976). 그러나 최근의 연구들은 이와 같은 가정에 의문을 제기한다. 즉 교육수준, 나이, 성별, 소득수준 등과 같은 인구사회학적 변인들이 설명할 수 있는 주관적 안녕감의 변량을 모두 합해도 주관적 안녕감의 총 변량의 약 15% 이하로 나타나기 때문에(Diener, 1984, 1994; Myers & Diener, 1995; Ryff, 1989), 인구사회학적 변인으로 주관적 안녕감에서의 개인차를 설명하는데 한계가 있다는 것이다. 그러므로 주관적 안녕감에 대한 최근의 많은 연구들은 주관적 안녕감과 개인의 심리적 특성들과의 관련성을 규명하려고 노력하고 있다. 예를 들면, 성격(Emmons & Diener, 1985), 외향성과 신경증(Costa & McCrae, 1980), 충동성과 사교성(Emmons & Diener, 1986), 자기 존중감(self-esteem; Campbell, 1981; Diener & Diener, 1995), 내적 통제력(Larson, 1989), 신앙심(Okun & Stock, 1987), 그리고 개인이 추구하는 목표의 특성(Emmons, 1986) 등과 같은 개인적 특성들과 주관적 안녕감과 관련성이 지난 20년간 광범위하게 연구되어 왔다. 이들 연구에 따르면, 주관적 안녕감의 수준이 높은 사람들은 자기 존중감이 높고, 자기 또는 주위에 대한 통제력을 갖고 있다고 생각하며, 낙천적*optimistic*이고, 외향적인 성격을 갖고 있고, 신앙심이 있고, 주위의 친구나 친척들과 보다 친밀한 관계를 유지하는 사람으로 나타났다(Myers & Diener, 1995).

국내에서는 1981년에 신도철의 연구가 발표되었을 뿐 주관적 안녕감에 대한 연구가 거의 이루어지지 않았으나, 1990년도 들어서서 조명환과 그의 동료들(김정오, 1994; 조명환·김상균, 1994; 조명환·김정오, 1993; 조명환 외, 1993)은 민주화와 정보화가 삶의 질에 미치는 영향을 체계적으로 연구함으로써 주관적 안

녕감에 대한 경험적 연구를 활성화 시켰다. 보다 최근에는 공동생활과 주관적 안녕감의 관련성을 규명하려는 일련의 연구들이 보고되고 있다(김혜숙·최진호, 1997; 나은영·김혜숙, 1997; 이종한·김혜숙, 1997). 그러나 주관적 안녕감에 대한 국내 연구들은 아직 부족한 실정이다. 특히 청소년 또는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가치관, 여가생활, 스트레스사건 또는 학교에의 적응문제를 다룬 연구들은 여럿 있으나 이들의 주관적 안녕감의 수준이 어느 정도인지 또 그들의 주관적 안녕감에 영향을 미치는 객관적, 사회적, 그리고 심리적 요인이 무엇인지를 밝히려는 연구는 극히 소수에 불과하다(김제은 외, 1997; 조명한 외, 1994). 본 연구에서는 우리 나라 청소년과 대학생의 주관적 안녕감에 대한 연구들을 간단히 살펴본 다음 대학생들의 주관적 안녕감의 수준과 이에 영향을 미치리라 추정되는 심리적 특성의 하나인 개인중심주의*allocentrism*-집단중심주의*idiocentrism*의 영향을 검토하려 한다.

II. 우리 나라 대학생의 주관적 안녕감

청소년의 주관적 안녕감을 직접적으로 다룬 연구로는 조명한 외(1994)의 연구가 있다. 이 연구에서는 13세부터 24세에 이르는 청소년 1,600명의 삶의 만족도와 정서적 안녕감을 측정하였다. 삶의 만족도는 조명한·김정오(1993)가 사용한 삶의 질 척도로 측정하였는데, 중간점수가 0점인 척도에서 청소년들의 전체 평균이 .25로 다소 긍정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삶의 만족도에서 여자청소년이 남자청소년에 비하여 낮은 수준을 보이며, 연령별로는 16-18세의 청소년집단이 다른 청소년집단에 비하여 낮은 수준을 보였다. 또한 거주지역에 의하여 부산·경남 지역에 거주하는 청소년들이 가장 높은 삶의 만족도를 보여주는 반면, 전라지역과 서울지역에 거주하는 청소년들은 가장 낮은 삶의 만족도를 보여주었다. 그러나 가족소득액, 아버지의 직업, 그리고 형제서열에 따른 청소년의 삶의 만족도에는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정서적 안녕감은 다면적 정서형용사검사*The Multiple Affect Adjective Check List: MAACL*를 사용하여 정적인 정서경험과 부적인 정서경험의 빈도를 측정하였다. 정서적 안녕감에 대한 주요결과는 삶의 만족도에서의 결과와 유사하였다. 특히 이 연구에서는 삶에서의 생활사건의 의미를 해석하는 바탕이 되는 삶에 대한 신념의 역기능성과 삶에 대한 부정적인 태도가 삶의 질에 부정적인 영향을 준다는 인지모형을 제시하였다. 경로분석에 따른 결과는 청소년의 삶의 질이 청소년 개개인이 갖고있는 세상에 대한 신념이

나 태도 등과 같은 인지적인 심리적 변수에 의해 크게 영향을 받는 반면, 가족 소득과 같은 경제적 변수는 청소년의 삶의 질에 대한 영향력이 미약함을 보여주었다.

김재은 외(1997)는 15개 대학에 재학중인 3,594명의 대학생의 삶의 만족도를 학생생활, 대인관계, 경제와 주거, 가치관과 종교, 정보화와 민주화, 여가와 시간관리, 가족관계, 그리고 전반적인 삶의 영역으로 모두 여덟 영역으로 나누어서 조사하였다. 삶의 만족도는 상대적 만족도, 타인의 관점에서 본 만족도, 그리고 주관적 만족도로 나누어서 조사하였다. 전체적인 삶의 만족도에서 남자대학생이 여자대학생보다 약간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3점이 중간점수인 5점 척도에서 주관적 만족도는 남자대학생이 2.80, 여자대학생이 2.69로 모두 약간 불만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연령, 나이, 그리고 사회계층 등의 배경변수를 예언변인으로 하고 주관적 안녕감을 준거변인으로 한 중다회귀분석에서는 단지 연령만이 유의미한 예언변인으로 나타났다. 연령이 설명하는 주관적 안녕감의 변량은 총 변량의 3%에 불과하였다. 이러한 결과는 연령이외의 성별, 사회경제적 계층, 월평균 용돈, 아버지의 학력 등과 같은 배경변수들은 주관적 안녕감의 수준을 잘 설명하지 못 함을 보여주는 것으로 조명한 외(1994)의 연구결과와 유사한 것이다. 또한 삶의 만족도를 준거변수로 하고 7개의 삶의 하위영역에 대한 만족도를 예언변인으로 하여 중다회귀분석을 실시한 결과, 7개 영역에서의 만족도 모두가 유의미한 예언변인으로 나타났으며 이들이 설명하는 삶의 만족도의 변량은 총 변량의 52%로 나타났다. 삶의 만족도를 잘 설명하는 예언변인은 가치관과 종교($\beta=.26$), 학업생활($\beta=.25$), 여가와 시간관리($\beta=.21$), 그리고 가족관계($\beta=.18$) 영역으로 나타났다. 가치관영역에 대한 문항들은 삶의 목표나 가치관 확립에 관한 문항들로 이 영역에서의 높은 점수는 자신의 삶의 목표와 가치관이 잘 확립되어 있다고 느끼는 것을 의미한다. 즉 자신의 삶의 목표가 있고 자신의 가치관에 대한 확신이 있는 사람이 삶의 질이 높음을 시사한다.

한국 대학생들과 미국, 일본 대학생들의 주관적 안녕감을 비교한 차경호(1995)의 연구에서는 한국 대학생들의 주관적 안녕감이 미국이나 일본 대학생들의 주관적 안녕감에 비하여 낮음을 보고하였다. 중간점수가 20점인 삶의 만족도 척도에서 한국대학생은 18.42, 일본대학생은 20.37 그리고 미국대학생은 23.97의 평균 점수를 보여주었다. 이는 한국대학생들이 전반적인 삶에 대하여 약간 불만족 한다는 김재은 외(1997)의 결과와 일치한다. 이 연구에서는 전반적인 삶의 만족도 뿐 아니라 교육, 건강, 가족 등의 각 생활영역에 대한 주관적 만족도도 측정하였는데, 거의 모든 영역에서 한국대학생들은 미국대학생들에 비하여 낮은 주관적

만족도를 보여주었다. 정적인 정서경험 빈도와 부적인 정서경험 빈도로 측정된 정서적 안녕감에 대하여도 만족도에 관한 결과와 유사하게 나타났다. 특히 이 연구에서는 개인의 주관적 안녕감과 심리적 특성과의 관계를 검토하였는데, 성격적 특성인 외향성과 문화적 특성인 집단중심주의적 성향이 주관적 안녕감과 정적인 상관이 있음을 밝혔다. 외향성과 집단중심주의적 성향이 주관적 안녕감과 정적인 관계가 있다는 결과는 문화권을 달리한 선행 연구들의 결과와 일치한다 (Bettencourt & Dorr, 1997; Costa & McCrae, 1980; Emmons & Diener, 1986; Sinha & Verma, 1994).

보다 최근에 조명한·차경호(1998)는 대학생들의 주관적 안녕감에 대한 국가 간의 비교연구를 보고하였다. 이 연구에 의하면 우리 나라 대학생들의 주관적 만족도의 수준은 41개의 조사대상국 중 38위, 정서적 안녕감에서는 31위로 상대적으로 아주 낮은 수준의 주관적 안녕감의 수준을 보여주고 있다. 물론 이 조사에 참여한 대학생들이 대표성이 있는 표본이 아니라는 점을 감안해야겠지만, 이러한 연구결과는 보다 포괄적인 측정치를 사용한 디너 외(Diener, et al., 1995)의 연구에서도 조사대상국 55개국 중 우리 나라 사람의 주관적 안녕감이 47위에 불과하다는 결과와 일치하는 것이다. 그렇다면 우리 나라 대학생들의 주관적 안녕감이 다른 국가의 대학생들의 주관적 안녕감에 비하여 왜 이렇게 낮을까? 조명한·차경호(1998)는 그 답을 국가의 문화적 성향에서 찾으려고 시도하였다. 이 연구에서는 각 국가의 개인주의적 성향을 트리앤디스(Triandis, 1995, 1996)의 제안에 따라 두 가지 유형, 즉 수직적 개인주의와 수평적 개인주의를 각각 측정하였다. 수평적 개인주의는 개인주의적 가치에 평등성(*equality*)을 포함한 보편주의가 더해진 형태이고 수직적 개인주의는 개인주의적 가치에 성취가 더해진 형태이다. 즉 수평적 개인주의에서는 개인들간의 독특성 또는 개성을 중요시하며 수직적 개인주의에서는 경쟁을 통한 성취를 중요시한다. 각 국가의 주관적 안녕감의 수준과 개인주의의 두 가지 유형에서의 점수와의 관계를 조사한 결과, 수평적 개인주의는 개인의 주관적 안녕감에 긍정적 영향을 주고 수직적 개인주의는 부정적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조사 대상국들과 비교해볼 때, 우리 나라는 수직적 개인주의가 상대적으로 높고(41개국 중 13위) 수평적 개인주의는 낮은(41개국 중 34위)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우리 나라의 개인주의의 특성이 개인의 주관적 안녕감에 상당히 부정적인 영향을 주고 있음을 시사하는 것이다.

위의 연구들을 요약해 보면, 우리 나라 대학생들의 주관적 만족도는 약간 불만족하는 수준이고 전반적인 주관적 안녕감의 수준은 다른 나라의 대학생들과

비교했을 때 상당히 낮은 수준이다. 주관적 안녕감에 영향을 주는 요인으로는 경제적 수준, 성별 등과 같은 사회경제적 요인들보다는 개인의 성격적 특성, 세상에 대한 신념 또는 삶의 태도 또는 가치관 등과 같은 개인의 심리적 요인들이 더욱 중요함을 알 수 있다. 또한 국가의 문화적 성향 즉 수직적 개인주의 성향이 낮고 수평적 개인주의 성향이 높을 때 개개인의 주관적 안녕감이 높다.

III. 연구 목적

문화적 성향이란 개인의 가치values, 신념beliefs, 태도attitudes 그리고 행동behaviors을 포함한 다양한 측면을 갖는 집합체로 기술할 수 있다. 휴이와 트리앤디스(Hui & Triandis, 1986)의 연구에 따르면, 개인주의 문화에서는 ① 개인이 자신의 행동을 통제하고, ② 자립적self-sufficiency이고, ③ 내집단ingroup의 목표와 개인의 목표와 무관하며, ④ 내집단과 대항하는 것이 때로는 좋을 수도 있다고 느끼고, ⑤ 죄책감guilt이 행동을 통제하며, ⑥ 개인적인 운명, ⑦ 개인이 심리영역에서의 중심이며, ⑧ 개인은 내집단과 확연히 구분된다고 느낀다. 이에 반하여 집단주의 문화에서는 ① 내집단이 개인의 행동을 통제하고, ② 상호의존적이며, ③ 개인의 목표가 내집단의 목표에 좌우되고, ④ 내집단의 조화를 중요하게 여기고, ⑤ 수치감shame이 행동을 통제하며, ⑥ 내집단과 개인이 공동운명체라고 느끼고, ⑦ 내집단이 심리영역에서의 중심이며, ⑧ 내집단이 개인의 확장된 형태로 인식한다. 개인주의-집단주의의 구분은 문화 수준에서의 구분이고 개인의 심리적 수준에서는 개인중심주의-집단중심주의로 구분한다(Triandis, 1989; Triandis, et al., 1985, 1988). 문화 수준에서의 구분과 유사하게 개인중심적 성향을 갖춘 사람은 편안한 삶, 경쟁, 즐거움 또는 사회적 인정과 같은 개인적 가치를 중요하게 생각하고 집단중심적 성향을 갖춘 사람들은 협동, 평등 또는 정직과 같은 집단의 가치를 중요하게 생각한다.

최근 트리앤디스와 그의 동료들은(Singelis, et al., 1995; Triandis, 1995, 1996) 개인주의와 집단주의에 두 가지의 유형이 있음을 제안하였다. 약 50개국에서 56가지의 가치에 대한 중요성을 평정하였는데, 그 결과 두 가지의 차원이 밝혀졌다. 첫 번째 차원은 개인주의-집단주의 차원으로 자율성self-direction과 쾌락주의hedonism과 같은 개인주의적 가치를 강조하는 문화와 동조성conformity과 안정성security과 같은 집단주의적 가치를 강조하는 문화로 나누어진다. 두 번째 차원은 수직-수평 차원으로 수직적 측면은 권력power이나 성취achievement를

중요시하는 문화를 포함하고, 수평적 측면은 자비심 *benevolence*이나 보편주의 *universalism*를 중요시하는 문화를 포함한다. 그러므로 집단주의적 가치에 자비심이 더해지면 수평적 집단주의가 되며, 개인주의적 가치에 평등성 *equality*을 포함한 보편주의가 더해지면 이것은 수평적 개인주의가 된다. 또한 집단주의적 가치에 권력이 더해지면 수직적 집단주의가 되고, 개인주의적 가치에 성취가 더해지면 수직적 개인주의가 된다. 문화 수준에서의 이러한 구분과 마찬가지로 개인의 심리적 수준에서도 수직-수평 차원으로 두 부류의 개인중심주의와 집단중심주의가 있으리라고 보는 것이 타당할 것이다.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개인주의-집단주의에 관한 연구는 개인중심주의-집단중심주의가 하나의 단일한 차원의 양극단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며 또한 개인중심주의와 집단중심주의가 각각 단일 요소가 아니라 여러 요소들을 포함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본 연구에서는 대학생들의 개인중심주의와 집단중심주의를 이루고 있는 요소가 무엇인지 밝히고, 이들 요소와 그들의 주관적 안녕감과의 관련성을 검토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집단중심주의-개인중심주의 성향과 주관적 안녕감과의 관계성을 직접적으로 밝히려는 연구는 적지만 집단중심적 성향의 사람은 스트레스에 대한 완충재 역할을 하는 사회적 지지 *social support*를 더 많이 받고, 개인중심적 성향의 사람은 외로움을 더 느낀다는 연구결과들(이홍표·한성열, 1994; Triandis, et al., 1985, 1988)은 주관적 안녕감과 집단중심적 성향이 정적인 상관이 있고 개인중심적 성향은 부적인 상관이 있음을 시사하고 있다. 집단중심적 성향과 주관적 안녕감과의 관계를 검토한 몇몇 연구들은 이들간에 정적인 상관이 있음을 보고하고 있다(차경호, 1995; Bettencourt & Dorr, 1997; Sinha & Verma, 1994). 또한 지방공동체의식과 주관적 만족도와 정적인 상관을 보고한 이종한·김혜숙(1997)의 연구나, 각 개인이 집단의 구성원으로서의 자부심과 집단에 부여하는 가치의식을 나타내는 집단자아존중감과 주관적 만족도와 정적인 상관이 있음을 보고한 김혜숙·최진호(1997)의 연구들도 집단중심적 성향과 주관적 안녕감과 정적인 상관이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그러나 차경호(1995)의 연구에서 사용한 척도와 동일한 주관적 만족도 척도와 개인주의-집단주의 척도를 사용한 김완석·김영진(1997)의 연구에서는 전반적인 삶에 대한 주관적 만족도와 집단중심적 성향과 아무런 상관도 관찰되지 않음을 보고하고 있다. 두 연구결과간의 차이에 대하여 적어도 두 가지의 설명이 가능하다. 하나의 설명은 조사참여자의 연령에 따른 차이이다. 차경호의 연구에서는 대학생들만을 대상으로 하였고, 김완석·김영진의 연구에서는 연령이 10대부터

50대까지의 참여자를 대상으로 하였다. 즉 조사대상자의 연령의 차이 때문에 결과의 차이가 날 수도 있다는 설명이다. 보다 그럴듯한 설명은, 김완석·김영진의 연구에서는 집단중심주의의 성향을 나타내는 단일 평균점수와 주관적 안녕감과 의 관계를 검토한 반면, 차경호의 연구에서는 집단중심주의의 성향을 상호의존성과 가족통합성이라는 두 가지의 요인으로 나누어서 주관적 안녕감과 의 관계를 살펴보았다. 집단중심주의는 하나의 단일한 요인만을 포함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 요인들을 함께 포함하고 있으므로 집단중심주의의 성향을 하나의 점수로 측정하여서 주관적 안녕감과 관련 지어보면 관련성이 나타나지 않을 수도 있다는 것이다. 즉 세부 요인들과 주관적 안녕감과는 관련성이 있지만 전체적인 집단중심주의의 성향과 주관적 안녕감과는 관련성이 나타나지 않을 수도 있다.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가능성을 검토하고자 한다.

본 연구에서는 개인중심적 성향과 주관적 안녕감과의 관계도 검토하고자 한다. 주관적 안녕감에 대한 국가간 비교를 한 연구들은 서구 국가들(미국이나 유럽 국가들)이 동양의 국가들(한국, 일본, 중국 등)에 비하여 주관적 안녕감이 높음을 보고하고 있다(조명한·차경호, 1998; 한국갤럽, 1990; Diener & Diener, 1995; Diener, et al., 1995; Michalos, 1991; Veenhoven, 1993). 각 국가의 주관적 안녕감의 수준과 사회경제적 지표 그리고 개인주의 성향과의 관계를 검토한 디너 외(Diener, et al., 1995)의 연구는 국가의 개인주의 성향이 주관적 안녕감의 수준과 가장 강한 정적인 상관이 있음을 보여주었다. 특히 중요한 결과는 개인주의 성향을 통제하였을 때 다른 사회경제적 지표와 주관적 안녕감의 관계가 관찰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이는 한 국가의 개인주의 성향이 강할수록 주관적 안녕감의 수준이 높다는 것을 의미한다. 또한 앞에서도 살펴보았지만 조명한·차경호(1998)는 한 국가의 주관적 안녕감의 수준은 수직적 개인주의 성향과는 부적인 상관을 보이며 수평적 개인주의 성향과는 정적인 상관을 보임을 보고하고 있다. 이러한 결과로 미루어보아, 개인의 심리적 수준에서 볼 때 수직적 개인중심주의의 성향은 주관적 안녕감과 부적인 상관을, 수평적 개인중심주의의 성향은 주관적 안녕감과 정적인 상관을 보일 것이라 예측할 수 있다. 즉, 같은 문화권에서도 개인간의 경쟁을 통한 성취를 중요하게 생각하는 사람의 주관적 안녕감은 낮을 것이고 개인의 독특성과 개성을 중시하는 사람의 주관적 안녕감은 높으리라 짐작된다.

그러나 김완석·김영진(1997)의 연구에서는 개인중심주의와 주관적 안녕감과의 관계가 나타나지 않았다. 또한 차경호(1995)의 연구결과에서도 미국 대학생 집단에서는 개인중심적 성향의 한 요인인 개인의 독립성과 주관적 안녕감과 정

적인 상관을 보여주지만 한국 대학생 집단에서는 이러한 정적인 관계가 나타나지 않았다. 이러한 결과는 개인중심주의가 그 유형에 따라 주관적 안녕감에 긍정적 영향과 부정적 영향을 모두 갖고 있고 문화권에 따라 개인중심주의를 구성하고 있는 요소가 서로 다르기 때문이라고 생각된다. 예를 들면, 개인중심주의의 개인 독립성이라는 요소가 미국 대학생들에게는 단일한 요소로 받아들여지지만 한국 대학생들에게는 다른 요소를 포함하고 있는 복합적 것으로 받아들여지기 때문일 가능성이 있다.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가능성을 검토하려 한다.

본 연구에서는 개인중심주의와 집단중심주의를 측정하기 위하여 차경호(1995)가 사용한 동일한 척도를 사용할 것이다. 개인중심주의와 집단중심주의가 포함하고 있는 요인을 찾기 위하여 먼저 개인중심주의 척도와 집단중심주의 척도 각각에 대하여 요인분석을 실시한 후, 추출된 각각의 요인과 주관적 안녕감과 상관을 검토할 것이다

VI. 방 법

1. 조사 참가자

호서대학교 경영·산업심리학부에 재학중인 학생들 260명이 조사에 참여하였다. 남학생이 106명이고 여학생이 153명이었고 성별에 응답하지 않은 학생이 1명 있었다. 설문조사는 자기-보고 형식이었으며 집단으로 실시되었다. 조사시기는 1999년 5월 31일 - 6월 11일 이었다.

2. 설문지

본 연구에 사용된 설문지는 173문항으로 이루어졌으며, 조명한·차경호(1998)의 연구에서 사용한 설문지와 동일한 것이었다. 설문지의 모든 문항은 조명한·차경호의 부록에 제시되어 있다. 173문항 중 본 연구에 관련이 되는 문항들은 다음과 같다.

1) 주관적 안녕감

주관적 안녕감을 측정하기 위하여 3 가지의 측정치가 사용되었다. ① 디너 의 (Diener, et al., 1985)에 의해 개발된 삶의 만족도 척도 *the satisfaction with life scale: SWLS*가 사용되었다. SWLS는 모두 5 문항으로 되어 있으며, 각 문항은

7점 척도로 되어 있다. SWLS의 점수는 각 문항의 점수를 더해서 5-35 점으로 표시했다. 그러므로 20점이 중간 점수이고 21-25점은 약간 만족함을, 15-19점은 약간 불만족함을, 26-30점은 만족함을, 그리고 5-9점은 아주 불만족함을 나타낸다. SWLS는 신뢰도나 타당도와 같은 주요한 심리측정적 요건들을 만족시킴을 여러 연구가 보여주었다 (Pavot & Diener, 1983). 김완석·김영진(1997)은 이 척도에 대하여 .86의 신뢰도 계수와 요인분석 결과 하나의 요인이 추출됨을 보고하고 있다. ② 앤드류와 휘티(Andrews & Withey, 1976)가 개발한 D-T 척도가 사용되었다. D-T 척도는 단일 문항으로 '괴롭다*terrible*'에서 '떨 듯이 기쁘다*delight*'의 7점 척도로 삶의 전반적인 평가를 요구한다. ③ 정서 빈도검사는 지난 한 달 동안의 정적인 정서와 부적인 정서를 얼마나 자주 경험했는지를 1(전혀 없다)에서 7(항상)의 7점 척도로 측정했다. 이 측정에는 기쁨, 자부심, 애정 그리고 만족감의 4가지의 정적 정서와 공포, 화냄, 슬픔 그리고 죄책감의 4가지의 부적 정서를 포함하고 있었다. 각각 4개의 정서빈도의 평균치를 정적 정서빈도점수와 부적 정서빈도 점수로 사용하였다. 또한 정서균형 점수*affective balance score*; ABS는 정적 정서빈도점수에서 부적 정서빈도 점수를 뺀 점수이고 정서균형 점수의 범위는 -6점에서 6점까지였다. 정서균형 점수가 높을수록 정서적 안녕감의 수준이 높다.

2) 영역별 만족도

참가자들은 21개의 개별 영역에 대한 만족도를 1(매우 불만족한다)에서 7(매우 만족한다)의 7점 척도로 측정하였다. 21개의 개별 영역 중 본 연구에서는 자기 자신, 건강, 자신의 자유, 가족, 친구, 교육, 재정상태 그리고 우리 나라에 대한 만족도만을 살펴볼 것이다.

3) 개인중심주의-집단중심주의

개인중심주의-집단중심주의 척도는 트리앤디스(Triandis, 1995)가 제작한 주관적 개인주의-집단주의 척도SIDCOL: *Subjective Individualism and Collectivism*에서 9점 척도로 되어 있는 32문항을 뽑아 사용하였다. 이 척도는 개인주의-집단주의 차원과 수평-수직 차원을 함께 측정하도록 개발되었다. 그러므로 4종류의 하위척도 즉 수평적 개인주의, 수직적 개인주의, 수평적 집단주의 그리고 수직적 집단주의에 대하여 각각의 점수를 계산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 각각의 하위척도는 각각 8개의 문항을 포함하고 있었다. 참가자들은 각 문항에 대하여 1(강하게 반대한다)에서 9(강하게 찬성한다)의 9점 척도로 평정하였다.

V. 결 과

모든 측정치들에 대한 분석은 spss for windows 8.0판을 사용하여 실시하였다.

1 주관적 안녕감

1) 주관적 안녕감

주관적 안녕감에 대한 주요 측정치들의 남녀에 따른 평균치와 표준편차가 표 1에 제시되어 있다. 다섯 개의 문항으로 이루어진 SWLS에서는 남학생이 19.23이고 여학생이 18.61로 남학생이 조금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나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는 아니었다. 남녀 모두 전반적인 삶에 대하여 약간 불만족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하나의 문항으로 이루어진 D-T 척도에서도 남학생이 4.24이고 여학생이 4.13으로 남학생이 조금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나 이 차이도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지는 않았다. D-T 척도에서는 4점이 중간점수이므로 약간 만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척도에 따라 만족도의 수준에 약간의 차이가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러나 단일 문항의 척도보다는 여러 문항을 포함하고 있는 척도가 보다 높은 신뢰도와 타당도가 있다.

표 1 : 주관적 안녕감의 측정치들의 평균점수와 표준편차

척 도	남자	여자	전체	남녀의 차이검증(t)
SWLS	19.23(5.73)	18.61(4.74)	18.84(5.16)	.944
D-T	4.24(0.91)	4.13(0.75)	4.17(0.82)	1.09
정적정서	3.90(1.03)	3.72(0.88)	3.79(0.95)	1.46
부적정서	2.72(0.86)	3.01(0.88)	2.89(0.88)	-2.64**
정서 균형점수	1.19(1.33)	0.71(1.34)	0.90(1.35)	2.80**
자기자신	4.72(1.44)	4.31(1.42)	4.47(1.44)	2.28*
자 유	5.08(1.29)	4.49(1.44)	4.73(1.40)	3.36**
건 강	5.11(1.36)	4.76(1.53)	4.90(1.47)	1.89
가 족	5.65(1.27)	5.44(1.29)	5.53(1.28)	1.27
친 구	5.43(1.24)	5.36(1.23)	5.39(1.23)	.478
교 육	4.53(1.36)	4.35(1.37)	4.43(1.37)	1.01
재정상태	4.05(1.29)	3.49(1.41)	3.71(1.39)	3.23**
우리 나라	4.47(1.60)	4.12(1.44)	4.27(1.51)	1.83

* p<.05 ** p<.01

정서적 안녕감의 측정으로 정적인 정서경험 빈도와 부정적 정서경험 빈도의 차이인 정서균형 점수에서는 남녀가 각각 1.19, .714로 이 차이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했다($t=2.85$, $p<.01$). 정서적 안녕감에서의 남녀의 차이는 정적 정서경험에서의 차이때문이기 보다는 부정적 정서경험에서의 차이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정적 정서경험 빈도에서는 남녀의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으나 부정적 정서경험을 여학생이 남학생에 비하여 자주 경험함을 보여준다. 정서적 안녕감에서는 전반적으로 부정적인 정서보다는 정적인 정서를 자주 경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2: 주관적 안녕감의 측정치들간의 상관계수

	SWLS	D-T	정적정서	부적정서
D-T	.622**			
정적정서	.433**	.426**		
부적정서	-.183**	-.326**	-.091	
정서 균형점수	.425**	.513**	.759**	-.718**

* $p<.05$ ** $p<.01$

주관적 안녕감을 측정하는 척도들간의 상관계수가 표 2에 제시되어 있다. 삶의 긍정적인 측면을 나타내는 SWLS, D-T, 정적 정서경험 빈도 그리고 정서균형점수와는 모두 정적인 상관이 나타났다. 삶의 만족도를 측정하는 SWLS와 D-T 척도의 상관이 .622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특히 주목해야할 사항은 정적 정서경험 빈도와 부정적 정서경험 빈도와는 유의미한 상관이 나타나지 않았다. 이는 정서적 안녕감을 측정할 때 정적 정서 또는 부정적 정서 하나만을 측정해서는 한계가 있음을 보여준다.

2) 영역별 만족도

영역별 만족도에서의 평균점수가 표 1에 제시되어 있다. 재정상태를 제외한 모든 영역에서 평균점수가 4.27에서 5.53으로 약간 만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재정상태에서는 3.71로 약간 불만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남녀의 차이는 재정상태($t=3.23$, $p<.01$), 당신의 자유($t=3.36$, $p<.01$) 그리고 자기자신($t=2.28$, $p<.05$)의 영역에서만 남학생들이 여학생에 비하여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높게 나타났다. 주관적 안녕감의 측정치와 영역별 만족도간의 상관관계가 표 3에 제시되어 있다. 건강과 삶의 만족도와는 상관만이 유의하지 않았고 모든 상관관계가 유의미한 것으로 나타났다. SWLS와 높은 상관을 보인 것은 가족($r=.474$), 자기자신($r=$

.471), 그리고 재정상태($r=.452$)의 영역으로 나타났다. 정적 정서경험과 높은 상관을 보인 것은 자기자신($r=.485$), 친구($r=.396$), 그리고 자유($r=.394$)의 영역으로 나타났다. 정서균형 점수와 높은 상관을 보인 것은 자기자신($r=.463$), 자유($r=.435$), 가족($r=.380$) 그리고 우리 나라($r=.323$)의 영역으로 나타났다.

표 3: 주관적 안녕감의 측정치와 영역별 만족도와와의 상관계수

	SWLS	D-T	정적정서	부적정서	정서 균형점수
자기자신	.471**	.384**	.485**	-.190**	.463**
자 유	.271**	.360**	.394**	-.245**	.435**
건 강	.190	.097	.225**	-.182**	.279**
가 족	.474**	.410**	.365**	-.191**	.380**
친 구	.372**	.343**	.396**	-.212**	.415**
교 육	.415**	.330**	.285**	-.098	.268**
재정상태	.452**	.335**	.255**	-.215**	.322**
우리 나라	.307**	.292**	.294**	-.183**	.323**

* $p<.05$ ** $p<.01$

표 4: 주관적 안녕감에 대한 영역별 만족도의 중다회귀분석 결과

준거변인	예언변인	B	β	R^2 변화	F값
SWLS	자기자신	.84	.24	.23	72.73**
	재정상태	1.02	.27	.32	58.84**
	가 족	1.00	.25	.37	49.57**
	교 육	.62	.16	.40	40.43**
	건 강	-.43	-.12	.41	33.97**
정서 균형 점수	자기자신	.24	.26	.21	70.22**
	자 유	.24	.24	.30	55.55**
	친 구	.21	.19	.33	42.10**
	재정상태	.12	.13	.34	33.33**

** $p<.01$

SWLS를 가장 잘 설명하는 삶의 영역이 어느 것인가를 알아보기 위하여 SWLS를 준거변수로 하고 8개의 영역별 만족도를 예언변인으로 하여 단계적 투입방법을 사용한 중다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그 결과가 표 4에 제시되어 있다. 5개 영역별 만족도가 유의미한 예언변인으로 나타났으며, 이들이 설명하는 SWLS

의 변량은 총 변량의 41%로 나타났다. SWLS를 잘 설명하는 예언변인은 재정상태($\beta=.27$), 가족($\beta=.25$), 자기자신($\beta=.24$), 교육($\beta=.16$) 그리고 건강($\beta=-.12$) 영역으로 나타났다. 또한 정서균형 점수를 준거변수로 한 중다회귀분석에서는 4개 영역별 만족도가 유의미한 예언변인으로 나타났으며 이들이 설명하는 정서균형 점수의 변량은 총 변량의 34%로 나타났다. 정서균형 점수를 잘 설명하는 예언변인은 자기자신($\beta=.26$), 자유($\beta=.24$), 친구($\beta=.19$), 그리고 재정상태($\beta=.13$) 영역으로 나타났다.

2 개인중심주의-집단중심주의

이 척도는 원래 수직적 개인중심주의, 수평적 개인중심주의, 수직적 집단중심주의 그리고 수평적 집단중심주의를 각각 측정하도록 되어 있는 척도이나, 한국 대학생들에서도 개인중심주의-집단중심주의에 대하여 수직-수평 차원이 동일하게 나타나는가를 검토하는 것이 필요할 것이다. 이러한 목적을 위하여 개인중심주의를 측정하는 16개 문항과 집단중심주의를 측정하는 16개 문항에 대하여 각각 요인분석을 실시하였다. 요인분석 방법으로는 주축분해법(*principal axis factoring*)을 사용하였으며 요인구조의 회전방법으로는 배리맥스(*varimax*) 회전법을 사용하였다. 개인중심주의에 대한 요인분석에서는 6개의 요인이 추출되었다. 다섯 번째 요인은 단지 두 개의 문항만을 포함하고 있고, 여섯 번째 요인은 하나의 요인만을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 분석에서 제외시켰다. 나머지 4개의 요인은 전체 변량의 51%를 설명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집단중심주의에 대한 요인분석에서는 4개의 요인이 추출되었다. 네 번째 요인은 단지 하나의 문항만을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 분석에서 제외시켰다. 나머지 3개의 요인은 전체 변량의 49%를 설명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분석결과는 우리 나라 대학생들에게는 개인중심주의와 집단중심주의가 수직-수평의 두 요인이 아니라 보다 세부적인 요인으로 나누어짐을 알 수 있다.

각각의 요인에 포함되는 문항들은 표 5와 표 6에 부하량의 크기 순으로 제시되어 있다. 각 요인에 대한 명칭은 부하량이 큰 문항을 기초하여서 붙여졌다. 개인중심주의를 먼저 살펴보면, 수평적 개인중심주의가 독특성과 자기의존성의 2가지의 요인으로 나누어졌고 수직적 개인중심주의는 경쟁을 통한 성취 요인과 경쟁에 대한 일반적 태도 요인으로 나누어졌다. 수평적 집단중심주의는 상호의존성과 사교성을 포함하는 하나의 요인인 상호의존성 요인으로 나타났다. 수직적 집단주의는 집단에 대한 의무감을 포함하는 의무 요인과 집단의 목표를 개인

의 목표에 우선하는 희생 요인으로 나누어졌다. 이러한 결과는 일반적으로 개인중심주의와 집단중심주의가 수평-수직 차원으로 나누어짐을 보여줌과 동시에 우리 나라 대학생들에게는 수평-수직 차원 각각에 세부적인 요인을 포함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표 5: 개인중심주의에서의 요인

요인 1: 독특성(uniqueness)

나는 개성 있는 사람이다.(806).

나는 내가 여러 면에서 다른 사람과 다르고 독특하다는 것을 즐긴다.(744).

나는 종종 내가 해야 할 일을 내 마음대로 한다.(459).

나는 사람과 토론할 때 직접적이고 솔직하게 말하기를 좋아한다.(396).

요인 2: 성취(achievement)

다른 사람이 나보다 더 잘하면 나는 속이 탄다.(711).

다른 사람이 나보다 더 잘하면, 나는 긴장되고 자극 받는다.(705).

다른 사람이 그들 자신의 일을 잘하는 것보다 내가 나의 일을 더 잘하는 것이 나에게 더 중요하다.(447).

요인 3: 경쟁(competition)

경쟁이 없다면 좋은 사회가 이룩될 가능성은 없다.(747).

경쟁은 자연의 법칙이다.(565).

나는 다른 사람과 경쟁하는 상황에서 일하기를 좋아한다.(508).

요인 4: 자기의존성(self-reliance)

나에게 일어난 일은 내 자신이 한 행동 때문이다.(458).

나는 나만의 개인생활을 좋아한다.(392).

나의 성공은 대개는 나의 능력 때문이다(308).

3. 개인중심주의-집단중심주의와 주관적 안녕감과의 관계

개인중심주의와 집단중심주의에 대한 요인분석시 회귀분석법로 얻어지는 각 요인에서의 요인점수(factor score)와 주관적 안녕감의 측정치들과의 상관계수가 표 7에 제시되어 있다. 또한 개인중심주의에 속하는 모든 문항에서의 점수들의 평균과 집단중심주의에 속하는 모든 문항에서의 점수들의 평균도 계산하여 이들 평균점수와 주관적 안녕감의 측정치들과의 상관계수도 표 7에 함께 제시되어 있다. 전반적인 집단중심주의와 주관적 안녕감의 측정치들간에는 유의미한 상관이 나타난 반면 개인중심주의와의 상관관계는 단지 정적 정서경험 빈도와만 유의한 상관이 나타났다. 각 개별 요인들과의 상관을 살펴보면, 집단중심주의의 상호의존성과 희생 요인이 주관적 안녕감의 거의 모든 측정치들과 유의한 상관을 보인

다. 즉 상호의존성과 희생 요인에서 높은 점수를 보인 사람들의 주관적 안녕감에서도 높은 점수를 보이고 있음을 의미한다. 개인중심주의에서는 독특성과 성취 요인이 유의한 상관을 보여주는데 독특성은 정적인 상관을, 성취는 부적인 상관을 보인다. 즉 독특성 요인에서 높은 점수를 받은 사람은 주관적 안녕감이 높은 반면 성취 요인에서 높은 점수를 받은 사람은 주관적 안녕감이 낮음을 의미한다. 특히, 독특성 요인은 정적 정서경험과는 정적 상관을 보이지만 부적 정서경험과는 유의미한 상관을 보이지 않는다. 이와는 반대로 성취 요인은 부적 정서경험과는 정적 상관을 보이지만 정적 정서경험과는 유의미한 상관을 보이지 않는다. 이러한 결과는 정적 정서경험과 부적 정서경험이 비교적 독립적인 변인임을 보여주는 것이다.

표 6: 집단중심주의에서의 요인

요인 1: 의무(obligation)

개인적 즐거움에 앞서 책임을 다하도록 아이들에게 가르쳐야 한다.(612).
내가 속한 집단과 조화를 유지하는 것이 나에게 중요한 일이다.(591).
우리는 부모님을 편안하게 모시고 함께 살아야 한다.(556).
중요한 여행을 떠나기 전에 나는 나의 가족이나 친구들과 상의한다.(522).
부모가 유명한 상을 받는다면 자녀들은 명예롭게 생각해야 한다.(512).
일을 같이 하는 나의 동료가 상을 받으면 나는 그것을 자랑스러워할 것이다.(455).

요인 2: 상호의존성(interdependence)

일을 같이 하는 나의 동료들의 복지가 나에게 중요하다.(582).
나는 다른 사람들과 협동할 때 기분이 좋다.(562).
나는 나의 이웃과 조그만 것이라도 나누기를 좋아한다.(523).
다른 사람들과 함께 시간을 보내는 것이 나의 즐거움이다.(502)
나는 보통 내가 속한 모임의 이익을 위하여 내 자신의 이익을 희생한다.(373).
나의 행복은 주위 사람들의 행복에 아주 많이 의존한다.(187).

요인 3: 희생(sacrifice)

비록 내가 몹시 싫어하는 일이라도 나의 가족을 기쁘게 하는 일이면 기꺼이 한다.(502).
친척이 경제적으로 어려움에 처해 있다면, 내 능력껏 도와줄 것이다.(487).
가족이 허락하지 않는다면 내가 아주 즐기는 일이라도 나는 하지 않는다.(369).

문화적 성향에서의 요인들이 SWLS를 어느 정도 설명하는가를 알아보기 위하여 SWLS를 준거변수로 하고 문화적 성향에서의 요인들을 예언변인으로 하여 단계적 투입방법을 사용한 중다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그 결과가 표 8에 제시되어 있다. 3개의 요인들이 유의미한 예언변인으로 나타났으며 이들이 설명하는 SWLS의 변량은 총 변량의 12%로 나타났다. SWLS를 잘 설명하는 예언변인은

성취($\beta=-.21$), 독특성($\beta=.20$) 그리고 희생($\beta=.14$) 요인으로 나타났다. 또한 정서균형 점수를 준거변수로 한 중다회귀분석에서는 2개 요인만이 유의미한 예언변인으로 나타났으며 이들이 설명하는 정서균형 점수의 변량은 총 변량의 14%로 나타났다. 정서균형 점수를 잘 설명하는 예언변인은 상호의존성($\beta=.24$)과 희생($\beta=.24$) 요인으로 나타났다.

표 7 : 개인중심주의-집단중심주의와 주관적 안녕감과 상관계수

	SWLS	D-T	정적정서	부적정서	정서 균형점수
개인중심주의	-.015	.059	.188**	.064	.085
독특성	.232**	.269**	.298**	-.022	.221**
성취	-.219**	-.134*	.077	.136*	-.037
경쟁	.032	.042	.103	.003	.069
자기의존성	-.030	.004	-.013	-.046	.018
집단중심주의	.162*	.245**	.322**	-.126*	.307**
의무	.049	.122	.136*	-.043	.120
상호의존성	.165**	.162*	.310**	-.110	.289**
희생	.202**	.248**	.262**	-.169**	.294**

* $p<.05$ ** $p<.01$

표 8 : 주관적 안녕감에 대한 개인중심주의-집단중심주의 요인의 중다회귀분석 결과

준거변인	예언변인	B	β	R ² 변화	F값
SWLS	독특성	1.16	.20	.05	13.36**
	성취	-1.27	-.21	.10	13.45**
	희생	.96	.14	.12	10.57**
정서 균형 점수	상호의존성	.43	.24	.08	22.60**
	희생	.45	.24	.14	19.57**

** $p<.01$

VI. 요약 및 논의

본 연구에서는 대학생들의 주관적 만족도와 정서적 안녕감을 측정하였고 이들 측정치들과 개인중심주의-집단중심주의의 각 요인들과 상관관계를 검토하였다.

주관적 만족도를 측정하는 대표적인 척도인 SWLS에서의 결과는 우리 대학생들이 전반적인 삶에 대하여 약간 불만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동일한 척도를 사용한 차경호(1995), 조명한·차경호(1998), 그리고 김재은 외(1997)의 연구결과와 일치한다. 그러나 하나의 문항을 사용한 D-T 척도에서는 약간 만족하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 결과도 차경호(1995), 조명한·차경호(1998), 그리고 조명한 외(1994)의 결과와 동일하다. 이러한 사실은 사용하는 척도에 따라 약간의 차이가 나타남을 보여준다. 그러나 이러한 주관적 만족도의 수준은 다른 나라 대학생들의 주관적 만족도의 수준에 비교하여 볼 때 상당히 낮은 수준임에 틀림이 없다(조명한·차경호, 1998). 정서적 안녕감을 측정하는 정서균형 점수에서도 전체 평균이 .9로 부정적 정서보다 정적 정서의 경험빈도가 약간 많은 것으로 나타났지만 다른 나라 대학생들과의 상대적인 수준에서 보았을 때 상당히 낮은 수준이다(조명한·차경호, 1998).

주관적 안녕감의 측정치들과의 상관을 살펴보면 주관적 만족도를 측정하는 SWLS와 D-T 척도만이 .622로 비교적 높은 상관계수를 보일 뿐 삶의 만족도 척도와 정서적 안녕감 척도와는 상관계수의 크기가 .183-.433으로 나타났다. 특히 정적 정서경험 빈도와 부정적 정서경험 빈도와는 상호 독립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조명한 외(1994)나 조명한·차경호(1998)의 결과와도 일치하는 것으로 주관적 안녕감의 측정치로 전반적인 삶에 대한 인지적 평가인 삶의 만족도와 정서적 안녕감이 상호보완적인 관계임을 보여준다. 또한 정적 정서경험 빈도가 높다는 것이 꼭 부정적 정서경험 빈도가 낮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두 정서경험의 빈도를 모두 측정하는 것이 필요하다. 영역별 만족도와 주관적 안녕감의 관계에서는 자기 자신, 가족, 재정상태, 자유의 영역에서의 만족도가 전반적인 주관적 안녕감과 비교적 높은 정적 상관을 보여주었다.

전반적인 개인중심주의는 정적 정서경험 빈도와만 정적 상관을 보일 뿐 다른 주관적 안녕감의 측정치들과는 유의한 상관을 보이지 않았다. 그러나 개인중심주의에 포함하고 있는 4개의 요인들 중 독특성과 성취 요인은 매우 일관된 상관관계를 보인다. 독특성 요인은 개인의 독특성과 개성을 중시하는 정도인데 개개인의 다양성을 인정함을 의미한다. 이훈구(1997)는 다양성이 존중받는 사회가 개인의 자기 효능감 *self-efficacy*을 높일 수 있는 기회를 많이 제공하기 때문에 주관적 안녕감이 높은 사회라고 제안하였다. 개인의 수준에서도 타인의 또는 자신의 독특성 또는 다양성을 인정하는 것이 개인의 주관적 안녕감이 높다는 본 연구의 결과는 위의 제안을 지지한다. 성취 요인은 독특성 요인과는 달리 타인과 경쟁관계에서 자신의 성취 정도를 중요시하는 정도로 이는 타인과 자신의 관계

를 다양성으로(다르다고 또는 수평적으로) 판단하기보다는 우수-열등, 좋다-나쁘다 또는 수직적으로 판단하는 경향성을 의미한다. 즉 하나의 획일적인 잣대에서 자신과 타인을 평가하려는 경향성이므로 이러한 상황에서는 자기 효능감을 높일 수 있는 기회가 상당히 제한되어 있다. 그러므로 성취 요인은 독특성과 같이 개인중심주의의 요소이지만 독특성 요인과는 달리 주관적 안녕감에 부정적인 영향을 준다. 자기의존성 요인이나 일반적인 경쟁에 대한 태도 요인은 주관적 안녕감과는 유의한 상관을 보이지 않았다.

전반적인 집단중심주의는 주관적 안녕감의 측정치들과는 일관된 정적인 상관을 보여주었다. 이러한 결과는 과거의 연구(Bettencourt & Dorr, 1997; Sinha & Verma, 1994)와 일치하며, 집단자아존중감이나 공동체의식이 주관적 만족도와 정적인 상관을 보인다는 연구들(김혜숙·최진호, 1997; 이종한·김혜숙, 1997)과도 일치한다. 그러나 집단중심주의와 주관적 안녕감과의 유의한 관계가 없음을 보고한 김완석·김영진(1997)의 연구와는 상충된다. 왜 이러한 차이가 나타나는지는 아직 확실하지는 않지만 본 연구나 차경호(1995)의 연구와는 달리 김완석·김영진의 연구는 상당히 다양한 연령의 조사대상자들을 포함하고 있었기 때문이라 생각된다. 이러한 가능성은 앞으로의 연구에서 다루어져야 할 것이다.

집단중심주의를 이루고 있는 3개의 요인 중 상호의존성 요인과 희생요인이 주관적 안녕감과 일관된 정적 상관을 보여준다. 상호의존성 요인은 사교성과 관련된 항목들을 포함하고 있다. 선행 연구들은 외향성의 한 요소인 사교성이 주관적 안녕감과 정적 상관이 있다는 결과를 일관성 있게 보고하고 있다. 또한, 차경호(1995)의 연구도 상호의존성과 유사한 집단의존성이 주관적 안녕감과 정적 상관이 있다는 보고를 하고 있다. 이러한 결과로 미루어 보아 타인의 중요성을 인정하고 타인과 서로 조화를 이루어간다는 삶의 태도는 주관적 안녕감에 긍정적인 영향이 있음을 알 수 있다. 희생 요인은 개인의 목표보다는 집단의 목표를 우선하는 정도를 나타내는 요인이다. 차경호(1995)의 연구에서도 희생 요인과 비슷한 가족통합성 요인이 주관적 안녕감과 정적인 상관이 있음을 보고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요인은 개인의 안녕감이나 행복보다는 전체 집단의 조화를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 요인이 개인의 주관적 안녕감에 긍정적인 영향을 준다는 결과는 설명하기가 어려워 보인다. 그러나 우리 사회가 아직은 전체적으로 집단적인 문화임을 전제한다면(Diener, et al., 1995; Hofstede, 1991) 어느 정도 설명이 가능하다. 집단적인 문화에서는 집단중심적인 태도를 갖고 있는 개인은 편안함을 느끼며 이에 반하는 태도를 갖춘 개인은 집단적인 문화와 자신의 태도간의 갈등을 더 자주 경험할 것이다. 즉 전체적인 문화와 개인의 문화적

성향간의 일치도가 높을수록 개인의 주관적 안녕감이 높을 가능성이 있다. 한국 대학생에게서와 달리 미국 대학생이나 일본 대학생에게서는 가족통합성이 주관적 안녕감과 관련이 없다는 차경호(1995)의 연구결과는 위와 같은 가능성을 지지한다.

개인중심주의의 독특성 요인과 성취 요인 그리고 집단중심주의의 상호의존성 요인과 희생 요인이 주관적 안녕감과 정적인 관련이 있다는 결과는 청소년 또는 대학생의 교육이나 우리 나라 문화의 변화 방향에 대하여 함의하는 바가 크다. 우리 사회가 급속한 경제 발전을 위하여 모든 영역에서 개인의 다양성보다는 효율성을 강조해오고, 그로 인하여 획일적인 하나의 잣대를 사용하여서 개인들간의 경쟁을 통한 성취를 부추겨온 것이 사실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타인의 존재의 중요성과 타인의 가치를 인정하는 상호의존성이 예전에 비하여 많이 퇴색되어 가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다시 말하면 우리의 문화적 환경은 개인의 주관적 안녕감에 부정적인 영향을 주는 방식으로 변화되어 왔다. 이러한 시점에서 가장 먼저 개선되어야 할 점이 바로 청소년의 교육환경이라 할 수 있다. 청소년의 교육현장에서 획일적인 기준에 의하여 개개인을 평가하여 우수-열등 또는 좋다-나쁘다를 구분하기에 앞서서 개개인의 다양성과 다양한 가치를 인정해 주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하겠다. 이러한 관점에서 대학의 입시전형 방법을 다양화하여 다양한 경력의 소유자를 대학에 입학시키는 입시제도의 변화는 바람직한 것으로 생각된다. 그러나 입시제도뿐 아니라 전반적인 교육 방식과 제도가 개인의 다양성을 인정해주는 방식으로 점진적으로 바뀌어 가지 않는다면 우리 청소년들의 삶의 질이 향상되리라고 기대하기는 어려울 것이다.

참 고 문 헌

- 김정오(1994). 정치민주화에 따른 개인 삶의 질의 변화. 사회과학과 정책연구, 제16권 제1호, pp. 169-228.
- 김재은·이은순·강순화(1997). 한국대학생의 삶과 만족도. 서울 : 집문당.
- 김완석·김영진(1997). 주관적 안녕 척도 : 공동생활 및 활동과의 연관. 한국심리학회지: 사회문제, 제3권 제1호, pp. 61-81.
- 김혜숙·최진호(1997). 한국인의 모임활동과 주관적 안녕감. 한국심리학회지: 사회문제, 제3권 제1호, pp. 41-60.
- 나은영·김혜숙(1997). 한국의 가족 및 혈연 공동생활과 삶의 만족도. 한국심리학회지: 사회문제, 제3권 제1호, pp. 3-17.

- 이중한·김혜숙(1997). 한국인의 지역공동생활과 주관적 안녕감. *한국심리학회지: 사회문제*, 제3권 제1호, pp. 19-39.
- 이훈구(1997). *행복의 심리학: 주관적 안녕*. 서울 : 법문사.
- 조명한·김상균(1994). *정보화 사회에서의 삶의 질에 대한 연구 II*. 서울 : 서울대학교 사회과학연구소.
- 조명한·김정오(1993). 정보화와 삶의 질: 사회활동 및 개인심리, 사회과학과 정책연구, 제15권 제3호, pp. 3-31.
- 조명한·김정오·권석만(1994). 청소년의 삶의 질, 사회과학과 정책연구, 제16권 제2호, pp. 61-94.
- 조명한·차경호(1998). 삶의 질에 대한 국가간 비교. 서울 : 집문당.
- 조명한·최명·이천표·김상균·김정오(1993). 정보화 사회에서의 삶의 질에 대한 연구 I. 서울 : 서울대학교 사회과학연구소.
- 한국갤럽연구소(1990). *한국인의 인간가치관*. 서울 : 한국갤럽조사 연구소.
- 한성열·이홍표(1994). 개인주의-집단주의와 지각된 소외감의 관련성 연구. *한국심리학회 '94연차학술대회 학술발표 논문집*, pp. 357-367.
- 차경호(1995). 한국, 일본, 및 미국 대학생들의 삶의 질 비교, 1995년 한국심리학회 춘계심포지움 "삶의 질의 심리학", pp. 115-143.
- Andrews, F. M. and Withey, S. B.(1976). *Social Indicators of Well-Being: America's Perception of Life Quality*. New York: Plenum.
- Bettencourt, B. A. and Dorr, N.(1997). Collective self-esteem as a mediator of the relationship between allocentrism and subjective well-being, *Personality & Social Psychology Bulletin*, Vol. 23 No. 9, pp. 955-964.
- Bradburn, N. M.(1969). *The structure of psychological well-being*. Chicago: Aldine.
- Campbell, A., Converse, P. E., and Rodgers, W. L.(1976). *The Quality of American Life*. New York: Russell Sage Foundation.
- Costa, P. T., Jr. and McCrae, R.(1980). Influence of extroversion and neuroticism on subjective well-being: Happy and unhappy people.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Vol. 38, No. 4, pp. 668-678.
- Diener, E.(1984). Subjective well-being, *Psychological Bulletin*, Vol. 95, No. 4, pp. 542-575.
- Diener, E.(1994). Assessing subjective well-being: Progress opportunities. *Social Indicators Research*, Vol. 31, No. 2, pp. 103-157.
- Diener, E. and Diener, M.(1995). Cross-cultural correlates of life satisfaction and self-esteem.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Vol. 68, No. 4, pp. 653-663.
- Diener, E., Diener, M., and Diener, C.(1995). Factors predicting the subjective

- well-being of nations.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Vol. 69, No. 5, pp. 851-864.
- Diener, E. and Emmons, R. A.(1984). The independence of positive and negative affect.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Vol. 47, No. 6, pp. 1105-1117.
- Diener, E., Emmons, R. S., Larsen, R. J., and Griffin, S.(1985). The Satisfaction With Life Scale. *Journal of Personality Assessment*, Vol. 49, No. 1, pp. 71-75.
- Emmons, R. A.(1986). Personal strivings: An approach to personality and subjective well-being.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Vol. 51, No. 6, pp. 1058-1068.
- Emmons, R. A. and Diener, E.(1985). Personality correlates of subjective well-being.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Vol. 11, No. 1, pp. 89-97.
- Emmons, R. A. and Diener, E.(1986). Influence of impulsivity and sociability on positive and negative affect.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Vol. 50, No. 6, pp. 1211-1215.
- Hofstede, G.(1991). *Cultures and organizations: Software of the mind*(세계의 문화와 조직). 차재호·나은영 (공동번역, 1995), 서울 : 학지사.
- Hui, C. H. and Triandis, H. C.(1986). Individualism-collectivism: A study of cross-cultural researchers, *Journal of Cross-Cultural Psychology*, Vol. 17, No. 2, pp. 225-248.
- Larson, R.(1989). Is feeling 'in control' related to happiness in daily life? *Psychological Reports*, Vol. 64, No. 2, pp. 775-784.
- Michalos, A. C.(1991). *Global report on student well-being*. New York: Springer-Verlag.
- Myers, D. G. and Diener, E.(1995). Who is happy? *Psychological Science*, Vol. 6, No. 1, pp. 10-19.
- Okun, M. A. and Stock, W. A.(1987). Correlates and components of subjective well-being among the elderly. *Journal of Applied Gerontology*, Vol. 6, No. 1, pp. 95-112.
- Pavot, W. and Diener, E.(1983). Review of the satisfaction with life scale. *Psychological Assessment*, Vol. 5, No. 2, pp. 164-172.
- Ryff, C. D.(1989). Happiness is everything, or is it? Explorations on the meaning of psychological well-being.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Vol. 57, No. 6, pp. 1069-1081.
- Singelis, T., Triandis, H. C., Bhawuk, D., and Gelfand, M.(1995). Horizontal and

- vertical individualism and collectivism: A theoretical and methodological refinement. *Cross-Cultural Psychology*, Vol. 29, No. 3, pp. 240-275.
- Sinha, J. B. P. and Verma, J.(1994). Social support as a moderator of the relationship between allocentrism and psychological well-being. In U. Kim, H. C. Triandis, C. Kagitcibasi, and G. Yoon(Eds.), *Individualism and collectivism*(pp. 367-275). Thousand Oaks, CA: Sage.
- Triandis, H. C.(1995). *Individualism and collectivism*. Boulder, CO: Westview Press.
- Triandis, H. C.(1996). The psychological measurement of cultural syndromes. *American Psychologist*, Vol. 51, No. 4, pp. 407-415.
- Triandis, H. C., Bontempo, R., Villareal, M. J., Asai, M., and Jucca, N.(1988). Individualism and collectivism: Cross-cultural perspectives on self-ingroup relationships.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Vol. 54, No. 2, pp. 323- 338.
- Triandis, H. C., Leung, K., Villareal, M. J., and Clack, F. L.(1985). Allocentric versus idiocentric tendencies: Convergent and discriminant validation. *Journal of Research in Personality*, Vol. 19, No. 3, pp. 395-415.
- Veenhoven, R.(1993). *Happiness in nations*. Rotterdam: Risbo.

ABSTRACT

Relationships between Subjective Well-Being and Idiocentrism-Allocentrism of College Students

Cha, Kyeong-Ho^{*}

This study examined the relationships between subjective well-being(SWB) and idiocentrism-allocentrism of Korean college students. Life satisfaction, life domain satisfaction, frequency of positive affect experiences, and frequency of negative affect experiences were measured by self-reports. Students reported they were slightly dissatisfied with their life and they experienced positive affects a little more frequently than negative affects. Compared to college students of other nations, life satisfaction and emotional well-being of Korean college students were very low. Life domain satisfactions at family, self, and finances showed relatively high correlations with life satisfaction. Life domain satisfactions at self, freedom, and friends showed relatively high correlations with emotional well-being. Idiocentrism-allocentrism was measured by subjective individualism and collectivism(SINCOL; Triandis, 1995). Factor analysis showed that idiocentrism consisted of uniqueness, achievement with competition, attitude toward competition, and self-reliance, and that allocentrism consisted of obligation to ingroups, interdependence with sociability, and sacrifice of personal goals. Uniqueness, interdependence, and sacrifice were positively related to SWB and achievement was negatively related to SWB. The implications of these findings were discussed.

* School of Management and Industrial Psychology, Hoseo University